

바울의 기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

The Prayers of St. Paul

W. H. Griffith Thomas 지음

조 중 권 옮김

바울의 기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

The Prayers of St. Paul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20. 7. 25

지 은 이 | W. H. Griffith Thomas 지음

옮 기 이 | 조종권

펴 낸 이 | 김영균

디자인·편집 | 김화영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 ISBN 978-89-89741-70-1

■ 정가 7,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본서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킹 제임스 흠정역 5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일러두기

이 책의 저자이신 Thomas, W. H. Griffith는 영국의 신학자로 1861년에 태어나 1924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는 진리침례교회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I. 은혜와 거룩함	9
II. 거룩히 구분함과 보존하심	23
III. 만족과 축복	35
IV. 사랑과 평강	47
V. 지식과 순종	63
VI. 싸움과 위로	80
VII. 지혜와 계시	96
VIII. 강건함과 내주하심	116
IX. 사랑과 분별력	132

1. 은혜와 거룩함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살전3:11-13)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우려면,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중보 기도와 다른 기도들을 드렸는지 알아보고 따라 해 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었

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기도에 관한 다음 명언을 평생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도는 힘 써서 해야 하며, 힘 써서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논쟁이나 옹호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설명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들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그가 느낀 것들을 간접적이지만 무척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몇 가지 기도문을 살펴 보고,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을 기록된 순서대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13절에 있는 기도를 가장 처음 접하게 됩니다. 이 구절들에는 우리가 다른 서신에서는 자주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사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사도 자신을 위한 기도 (11절)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올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연합이신 한 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문장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연합은 매우 충격적이고 의미심장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승천하신 뒤 25년이 안 된 시점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 이른 시점에 사도 바울은 간결하지만 확실하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존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주 놀랍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어 원문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잘 알려진 문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영어든 그리스어든 어떤 동사와 관련된 주어가 두 개의 명사로 되어 있다면, 동사는 복수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이 구절을 읽어 보면, 주어가 아버지와 그리스도 두 분인데도 동사인 “인도하다”를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도 나타남

니다.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이 짧은 구절은 초대 교회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고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방해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열어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그분 앞에 내려 놓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 중에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에 대해 잘 알려진 어떤 말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을 때, 그분께 영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는 것만큼 그분을 모욕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시37:23)라는 말씀은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뿐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라.” (시32:8)라는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조언해 주시고 원칙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섭리를 통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구했을 때, 성령님, 성경 말씀, 섭리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2.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12-13절)

“주께서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신에 대한 기도를 마친 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 중 가장 위대한 선물인 사랑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들을 대신해 구하셨습니다. 사랑은 화평과 모든 선행을 묶는 끈이며, 사랑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그분 앞에서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느낌과 함께 증발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¹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이 최고의 선물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¹ 역주 - 요일4:7-8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늘어나고 풍성해지며”²

이 선물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늘어난다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 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을 충분히 소유할 수 있도록 마음의 크기가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해진다는 것은 성도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어져 있는 엄청난 사랑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다음으로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새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타난 특별한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 사랑, 형제들의 사랑, 형제 관계 등에 관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겨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사귄이며, 결합이

2 역주 - 우리말 흠정역의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라는 부분이 영어 KJB에는 “to increase and abound in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늘어나고 풍성해지며”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one toward another, and toward all men)”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사(늘어나다, 넘치다)를 부사(많이, 넘치도록)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인 이 책의 저자는 영어 성경의 increase(늘어나다, 증가하다)와 abound(풍성하여 넘치다)의 의미를 설명하려 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말 흠정역의 번역보다 직역을 사용했습니다.

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가를 살펴 보면, 그들의 사랑이 새 명령을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사랑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목록이 형제 간의 사랑(친절) 다음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벧후1:7)³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 받은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나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안 듣는 아들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들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쁨을 느끼며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상

3 역주 - 벧후1:7의 사랑은 love가 아니라 charity로 형제 간의 사랑, 또는 헌신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대방을 붙잡고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기도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추구해야 할 최상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진심을 담지 않고 행동으로만 사랑 하는 척 하거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같은 사랑을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사랑은 거룩함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룩함이란 분리됨(separateness)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생활 방식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 뒤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분을 섬기는데 헌신하고,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⁴

4 역주 -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거룩히 구분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영어의 holiness를 설명하기 위해, consecrate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Consecrate는 흠정역에서 “거룩히 구분하다”로 번역되어 있으며, 이 책에서는 그 번역을 따랐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함, 성화 또는 이런 단어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사용될 때에는 어디서든 깨끗함, 순수함보다는 분리됨 또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과 관련된 단어 중 하나인 성도(saint)라는 단어도 순수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⁵

한 마디로 말해, 마음이란 우리의 도덕적, 영적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거룩히 구분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전부를 분리시켰다는 사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

5 역주 -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줄여서, 지(知), 정(情), 의(意)라고 하기도 합니다.

려 함이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연약해지거나 흔들이지 말고 늘 꾸준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굳건함과 변함 없는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함 안에서 그리고 은혜로 마음이 세워질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확정되고 굳게 세워진 마음에 대해 강조하는 구절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시 57:7, 108:1, 112:7, 히13:9)

꾸준한 마음이란 흠 잡을 것이 없는 마음, 다시 말해 책망 받을만한 것이 없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흠 잡을 것이 없는 마음과 흠이 하나도 없는 마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꼬마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흠 투성이라고 해 봅시다. 하지만 꼬마가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이는 그 일로 인해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흠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책망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이며,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사랑과 거룩함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

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그분을 향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며, 우리의 능력은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강력한 권능으로 강화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커다란 보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의 기도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고 겪게 될 위대한 미래를 이야기한 뒤,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때 주실 보상을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한 거룩함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 몇 마디 말로 그 날이 얼마나 훌륭한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는 가장 먼저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도들 역시 거기에 그분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리스도인 동료들 사이에 둘러 쌓인 채,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신 분 앞에서, 거룩하며 흠 잡을 것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같이 우리도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같이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는 그들이 풍부한 사랑과 완벽한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이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인생을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두 단어로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간단해 보이는 일이 가끔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 자주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위대한 일을 해 내거나 인내함으로 세상에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 되어 우리 마음이 은혜 안에서 굳게 세워질 때까지, 날마다 사랑을 계속하고 은혜와 거룩함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II. 거룩히 구분함과 보존하심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살전5:23-24)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들에 관해 공부해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가 한 기도들에는 전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참고해야 할 것들,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 지켜야 할 기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방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리

스도인다운 성품을 지니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며 살기 위해 바울 사도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을 공부해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 보려고 합니다.

1. 청원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⁶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화(sanctification), 거룩함(holiness), 거룩(holy)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여러 표현들의 근본 의미는 “분리됨”입니다. 왜 그런지는 거룩하거나 성스럽다고 불리는 건물 또는 사물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면 알기 쉽습니다. 건물이나 무생물에는 정결(purification)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

6 역주 - “거룩히 구별하다”와 “거룩히 구분하다”가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거룩히 구별하다”는 sanctify의 번역이며, “거룩히 구분하다”는 consecrate의 번역입니다. 사실 이 둘은 영어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배우는 “성화(sanctification)”라는 단어는 “거룩히 구별하다”, sanctify의 명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흠정역에는 등장하지 않는 성화라는 단어를 이 구절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니다.⁷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문에서 등장하는 성화를 거룩히 구분함(consecration)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의미는 “거룩히 구별하시다(sanctify)”가 사람들과 관련되어 쓰일 때 적용할 수 있는 근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찾아 보아도, 이 단어가 정결하게 한다는 개념을 정말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합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히 구분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통해 적절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오니 그들도 진리를 통해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17:19)⁸

7 역주 - 레16:19에는 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 민31:23에는 노략물을 불을 통과시켜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이는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100% 성경적인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8 역주 - 성경을 펼쳐 보면, “거룩히 구별하다(sanctify)”라고 되어 있지, “거룩히 구분하다(consecrat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KJB 뿐만 아니라, RV, NIV 같은 현대 역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consecrate의 의미가 자신을 거룩히 구분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어 성경의 단어를 동의어로 바꾸어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거룩히 구분 받게 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 “온전하게”는 구약 70인역에서 희생물들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는데, 헌물을 목적에 맞게 드리기 위해 통째로 그리고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통째로, 온전하게, 따로 떼어 놓은 부분이 없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빼돌리거나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넘겨 드려야 하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지속적인 보존하심 가운데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준비되어 있도록 매일매일, 매 시간,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상태를 유지,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거룩히 구분하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분께서 보존해 주시는 영역 역시 주목해 볼만합니다. 영은 우리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즉 생각, 상상, 감정, 가치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지성(intellect), 마음(heart), 의지(will)가 머무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혼과 영을 활용하고 표현하기 위한 외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는 몸을 이용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주 대화할 때에나, 일부 찬송가 가사에서 볼 수 있는 “몸, 혼, 영”의 순서가 아니라, “영, 혼, 몸”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가 우리의 영 즉 우리의 본성 가장 깊은 곳부터 온전히 주님께 굴복시킬 때, 우리 본성의 모든 부분이 그분께 순종하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온전하게 거룩히 구분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며,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요구하시는 책임감과 엄숙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예배하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우리의 성품이든 행위든, 기도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온전하게 거룩히 구분되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 모든 능력들이 온 힘을 다해 하나가 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2. 전제 조건

기도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칭호는 이 기도문의 밑바닥에 깔린 믿음 또는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관련된 칭호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와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특별한 지점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칭호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도문에서 거룩히 구분하심과 보존해주심을 바라며 사용한 칭호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거룩히 구분하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마찬가지로 거룩히 구분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일이며, 미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분하심 또는 성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만, 거룩히 구분하심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의 행위와 태도를 헌신으로 여기는 것이 더욱 성경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분리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물로 표시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쓰심과 그분을 섬기는데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명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그분과 인격적이고 복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왜 평강이 거룩히 구분하심 그리고 보존하심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나오는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평강⁹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로마서 5장 1절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또 어떤 때에는 빌립보서 4장 7절처럼 “하나님의 평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9 역주 - 흠정역에는 문맥에 따라 영어의 peace가 평강, 평안, 화평, 평화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은 모두 “평강의 하나님”(빌4:9)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화해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골1:20), 우리를 그분과 화평하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속죄 희생을 받아들일 때 혼에 평강이 찾아 옵니다. 이러한 화해를 깨닫게 되면, 이어서 충만한 안식과 평강이 샘솟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과 거룩함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따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화해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거룩히 구분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반드시 의(義)를 바탕으로 두어야 하며, 의는 믿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주어 집니다. 마음에 그분에 대한 적대감이 남아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을 잊고 살다 보니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충격과 실망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받은 평강은 잘 간직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을 하지 않은 채, 거룩해지고 싶다는 갈망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모

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에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경험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은 만들지도 않은 채 빵을 구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끝내야 할 쉬운 과정을 무시한 채 더 어려운 다음 과정을 시도해 봤자 실패할 뿐입니다. 오로지 화평을 통해서만 거룩함이 올 수 있으며, 오로지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만 이와 같은 기도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 다시 바울 사도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관해 특별하게 언급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그날이 다가오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날이 어떤 날인지 꾸준히 알려 왔습니다. 그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흠 없이”를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흠 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우 거룩히 구분되고 보존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위대하고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거룩함과 우리가 누리게 될 위대한 미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구분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가깝고도 밀접한 관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리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거룩해지고 싶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4. 약속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몇지게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이 모든 이상적인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실제로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성취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네, 주님께 제 삶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흠 없이 거룩히 구분하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라는 성경 말씀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계시의 근본 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주께서는 신실하사”, “그분은 신실하시니”, “이것은 신실한 말이니” 같은 표현이 자주 보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들 위에서 안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강

렬한 기쁨과 확실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거룩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종 필요하며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기도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분의 거룩하심 위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내는 현실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잘 지켜 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건전하지 못한 생각과 두려움에 빠져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을 꽉 채우면 편안히 안식하고, 조용하며, 강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은혜 안에서 항상 성장하게 됩니다.

Ⅲ. 만족과 축복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살후1:11-12)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각각 연관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초림에, 영광은 재림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 보려는 바울 사도의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전부 포함

되어 있습니다.

1. 기도하는 이유

이 부분은 RV의 번역을 읽어 볼 때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흠정역의 “그러므로 우리도 [...] 기도함은(Wherefore also we pray)”가 RV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도 [...] 기도함은(To which end we also pray)”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 따라 RV는 이 기도문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 나온 구절들이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승리한 미래” 때문입니다. 그날은 그분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려 오시는 날이며, 그날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분의 영광에 놀라게 되는 날이다. 사도 바울은 다가오는 관(crown)을 받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이 영광스러운 소망에 따라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험 받고 있는 현재 상황” 때문입

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불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살후1:4-7). 그 당시 그들이 겪고 있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들이 고통의 용광로로부터 구출될 날에 대한 소망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 볼 때, 그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 중보 기도를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도의 본성

이 아름다운 기도는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그분의 왕국으로 그 분께서 우리를 호출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국은 아마도 현재와 미래 둘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에는 그분의 부르심이 그분의 초청 또는 간청만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신서에는 그 부르심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도 포함하는 것으로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곳

에서는 그분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기도문에서와 같이 너희의 부름(your calling)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¹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성도들이 응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이 서신서들에서도 이 개념은 자주 등장합니다. (살전 2:12, 4:7, 5:24, 살후2:14)

“너희를 [...]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count you worthy)”라는 부분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다섯 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¹¹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왕 중의 왕께서 우리 삶에서 뭔가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람은 절대 그분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칭의, 다시 말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처럼, 성화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로 할 수 없

10 역주 - KJB에서 이 부르심(this calling)이라는 번역이 RV에는 너희의 부름(your call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KJB에서도 고전1:26, 엡4:4, 벧후1:15에 your calling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1 역주 - 살후1:5, 1:11, 딤후5:17, 6:1, 히3:3

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앞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합당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후커¹²가 남긴 칭의에 대한 유명한 말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이는 그의 믿음에 그렇게 되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은 그분께서 그렇게 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합당함과 관련해 조금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을 합당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기에 합당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면밀히 살핀 뒤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 리처드 후커, Richard Hooker, 1554-1600, 영국의 신학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에 대한 모든 열망과 믿음의 모든 일을 권능으로 성취해 주시게 하려 함이며.” (RV)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흠정역의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보다 좀 더 이해할만하고 적절히 번역되었다고 생각합니다.¹³

이 구절은 선한 양심에 따라 해 보고 싶은 모든 것과 믿음으로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취에 대한 열망과 그에 필요한 활동을 잘 섞어 놓은 표현입니다. 또는 선한 일을 해 내고 싶은 열망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에 따라 해 내고 싶은 모든 선한 일을 향한 열망과 믿음에서 출발한 모든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또는 힘 있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맞이 헌금”과 같은 친숙한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선한 열망을 집어 넣으시고, 이어서 꾸준히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감을 통해 우리는 선한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

13 역주 - 기쁨(열망)과 믿음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KJB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며, RV는 성도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3. 기도의 결과

이 기도에서 언급하는 두 가지 결과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찬란한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찬란하게 드러내 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 모두가 포함됩니다.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통해 드러나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빛으로 드러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조금이나마 보

게 된다는 이 간단한 사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특권이며 정말 중대한 책임이라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들어 본 가장 아름다운 간증 중 하나는 따돌림 받던 가난한 소녀가 죽어가는 중에 그녀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한 언니에게 한 이야기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언니를 알고 난 후로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고”

그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 터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영광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기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에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몫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항상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이것 역시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모든 사람의 삶은 그분과의 연합과 사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인 되시는 분께 신실하게 살아 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행한 것들은 밝히 드러나고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들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별들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4. 기도가 보장하는 것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에 대한 비밀을 빼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기도에서도 그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기도를 끝마칩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라는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¹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말 많은 애정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살전2:2, 3:9, 고전6:11). 우리 하나님보다 좀 더 개인적인 표현인 “나의 하나님”은 그의 서신에서 7번이나 등장합니다.¹⁵ 이 말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복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14 역주 - 영어 KJB에서는 이 부분이 기도의 맨 끝에 기도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한국어 흠정역에서는 어순 상의 이유로 12절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15 역주 - 롬1:8, 고전1:4, 14:18, 고후12:21, 빌1:3, 4:19, 몬1:4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¹⁶

그리스도는 은혜의 통로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한 통로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중재해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됩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 때문에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이는 수준의 이런 기도조차도,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고, 응답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보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능력까지 줍니다. 명령하시는 분께서 가능하게 하시며, 부르신 분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며, 약속이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원천이며, 동시에 권능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16 역주 - 시48:14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거스틴처럼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주옵시고, 주께서 하실 일을 명령하옵소서.”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제게 영적 힘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저는 주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제 마을을 자유롭게 하실 때에 저는 주께서 명령하신 길을 따라 달려가겠나이다.”¹⁷ 우리도 같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의 삶이며, 동시에 영광의 삶입니다. 먼저 은혜가 온 뒤, 다음에 영광이 옵니다. 은혜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은혜가 더해질 때, 영광도 더해집니다. 은혜가 있을 때, 영광도 있습니다.

은혜, 오 아름다운 소리여, 모든 귀에 조화롭게 흘러드는도다. 그 소리 하늘에 닿아 멀리 울려 퍼지니, 온 땅은 그 소리 듣게 되리라.

17 역주 - 시119:32

IV. 사랑과 평강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살후3:5, 흠정역)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또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3:5, RV)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후3:16)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짧은 두 서신에 기도가 몇 개나 되는지 세어 보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이 서신들은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쓴 서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들에 기도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가 기독교 개종자들과 그들의 필요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기도의 내용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편의 기도를 공부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둘째 서신에는 아직도 공부해 봐야 할 두 개의 기도가 더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을 담은 간절한 기도이지만, 많은 것이 함축된 표현과 중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 기도는 간절하기도 하고 두 기도들 사이에 영적인 연관성도 있어서 둘을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이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1. 목적지

이 기도의 문맥부터 잘 살펴 봅시다.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악한 자들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에 따라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강한 확신에 대해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들이 그의 조언들과 명령들을 신실하게 따를 것을 믿고 있다는 개인적인 신뢰를 표현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이 기도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거룩한 목적지, 다시 말해 우리 혼의 진정한 집이며 우리 혼이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¹⁸

“너희 마음”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번에도 바울 사도는 영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요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료한 의미로 사용해야 합니다.¹⁹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마음에는 지성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화할 때, 지성적인 부분을 머리라고 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의미의 “마음”에는 지성, 감

18 역주 - 살후3:5를 직역하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또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노라”이며, RV에는 “그리스도를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내”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의 혼이 최종적으로 머물러야 할 목적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19 역주 - 한국어의 특성상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heart만큼 명료하게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에서는 heart가 지성과 감성을 다 포함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논리와 이성인 강한 부분을 mind로, 느낌과 감성이 강한 부분을 heart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너희 마음(heart)과 생각(mind)을 지키시리라”입니다. 이런 이유로 흠정역에서 대개 heart는 마음으로 mind는 생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mind를 생각이라고만 번역할 경우, mind에서 만들어낸 생각인 thought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mind를 부득이하게 마음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의 “왕의 마음(mind)에 일어난 생각들(thoughts)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외에도 영어에는 mind와 heart가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말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6절을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의 mind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은 heart입니다.

정, 그리고 의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음이 올바르면, 인생의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마음을 가장 먼저 지키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²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이라는 부분을 통해, 우리 마음이 “사랑 속”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혼이 도달하게 될 진정한 목적지이며 진정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고, 가족들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집보다 더 나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혼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은 장소는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항상 보호 받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진정한 집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와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20 역주 - 잠4:23. “인생의 문제”라고 번역된 부분은 issues of life로 흠정역에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에서 issue라는 단어를 찾아 보면 “어떤 곳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것” 정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자손”, “피 흘림”, “유출물”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뜻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경우에는 life를 인생으로 보면, 이 부분은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문제들”이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Issue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책의 저자뿐 아니라, D. L. 무디도 “심음과 거둠의 법칙 (Sowing and Reaping)”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같은 방식으로 인용해 사용한 것을 보면, 많은 원어민들이 이 부분을 “인생의 문제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최고로 풍성하고 최고로 진실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²¹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도 교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보다도 특히, 이 혼의 집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일단 집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 오면, 우리는 집이 주는 은밀함, 안락함, 기쁨,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때 우리는 복된 안식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충만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절히 돌보아 주시는 곳이며 그분께서 주시는 복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깊고, 심오하며, 꾸준하고, 순수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집입니다.

스펠전이 하루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이 써 있는 풍향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풍향계 주인에게 “이 말씀은 풍향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향계처럼 이리저리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말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21 역주 - 요일1:3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어떤 일이 닥치든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love of God)”이라는 이 표현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쩌됐든, 몇몇 구절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롬5:5).²²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²³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낳습니다.

어떤 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최종 목적지와 집으로 삼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랑은 그의 삶에 샘물과 힘과 양식과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라는 부분을 살펴 봅시다. 킹제임스 성경

22 역주 - 저자의 의도는 흠정역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는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이니”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of라는 단어가 소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상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벧후3:18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지식 안에서 자라라”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지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 역주 - 요일4:21

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안으로(into the patient waiting for Christ)”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어로는 다른 표현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보다는 자발적이며, 끈질기게, 꾸준히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전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란 그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인내하는 것과 그분께서 직접 모형으로 보여주신 인내를 의미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거역한 것을 그분께서 얼마나 잘 참으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분께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고통 중에서도 섬기실 때에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²⁴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내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참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형일 뿐 아니라,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같은 수준의 인내로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

24 역주 - 이 문단은 히12:3, 눅9:51, 히11:27, 마24:13을 조금씩 변형해 사용했습니다.

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²⁵ 모형을 따라 살 힘이 없는데도 그러한 모형을 따라 살려고 하거나,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없는데도 그분을 본받아 살려 하는 것은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낙심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리고 괴롭히시려고 그러신다는 생각만 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기준을 정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 살 힘을 주시므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 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인내하며 버티는 일은 분명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구원 받고 새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들은 혹독한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핍박과 따돌림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 그들에게 임했고, 이것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를 통해 바울 사도의 기도는 응답 받았습다. 이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내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록 환경은 매우 달라졌지만, 이와 동일한 인내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죄는 아직도 강력하고, 시련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우리들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

25 역주 - 빌4:13 변형

성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을 꾸준히 지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²⁶라는 고백을 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악한 자들이 변영하는 것을 보고 비슷한 믿음 없는 울분을 토해 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사야 대언자처럼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한 농부 같은 처지가 되어 우리도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썼으니 헛되도다”²⁷라고 소리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인내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인내의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인내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잘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셨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꾸준히 머물기만 한다면,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지켜 나갈 수 있고, 그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 역주 - 시73:13

27 역주 - 사49:4

2. 인도하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목적지까지 가려면 정확한 방향과 세심한 인도가 필요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우리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죄는 우리 마음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여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집으로 가는 길을 곧게 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걸까요?

첫째 방법은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점점 더 많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의사소통이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이 곧게 뻗은 길을 따라서 그분의 변함없고, 한치도 틀림없으며 끝없는 사랑을 더 깊게 그리고 더 충만하게 체험하도록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방법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점점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을성 있는 인내는 단번에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훈련과 계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시험 받은 뒤 얻게 되는 모든 교훈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충분히 인내해야 하는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힘과 강건함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I. 은혜와 거룩함”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드러난 본보기들, 조언들, 약속들, 경고들, 기대 사항들, 보상 계획들은 우리 마음에 권능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우리 혼의 집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각을 소유하시고 정화시키시며, 우리의 동기를 깨끗하고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고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악으로부터

터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덕, 승리, 거룩한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안내하고 인도하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 일상생활의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훈계와 징계, 수많은 사소한 사건들과 그로 인해 경험해야만 했던 것들, 매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평범한 일들, 좋은 날과 안 좋은 날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이 기도를 보완해 주는 둘째 기도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3. 선물

데살로니가후서를 끝맺는 기도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의 몇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은 완전하고 끊임없는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한 평강은 양심의 평강입니다. 죄는 깨어 있는

혼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의 저주는 의식적으로 그 짐을 더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저주가 없는 안식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기 위해 울부짖습니다.

우리에게 둘째로 필요한 평강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저주와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된 혼은 곧 새로운 힘, 새로운 관심거리, 새로운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는 긍휼로 소멸되었으나 현재는 큰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공포와 좌절이 유혹하고, 혼은 평강을 고대합니다. 화해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후, 마음의 안식을 통한 하나님의 평강이 매일 매일 우리 마음에 찾아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셋째로 필요한 평강은 교제의 평강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평강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평강과 교제를 통해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 기도의 문맥을 살펴 보면, 바울 사도는 평강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있는 중간 분리 벽을 허무시고 우리 모두를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²⁸

4. 주시는 분

이 세 가지 평강은 평강의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양심의 평강을, 부활하심으로써 마음의 평강을,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교제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평강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분의 영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분께서는 두 가지 평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처음 그분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양심의 평강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분의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 속에 잘 드러난 그분의 평강은 이제 제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평강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²⁸ 역주 - 엡2:14 변형.

그들에게 평강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에 등장한 “평강의 주”라는 칭호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 “평강의 주”라는 칭호는 오직 여기에서만 발견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확실히 이 칭호는 우리에게 신앙 생활을 잘 하는 법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그분의 통치와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통치가 있고, 나중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오직 통치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의와 평강에 대한 시편 내용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의 의이신 주님이 되실 때에만,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어깨 위에 통치가 놓여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반드시 따라 오는 복된 결과가 완전한 평강입니다.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의 지속성 역시 주목해서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끝이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여건과 관련이 없으며,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우리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전적으로 평강의 주님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체험이나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이 주어지는 통로 또한 중요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평강은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평강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로와 방식을 통해 우리를 찾아 옵니다. 이 평강을 받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는 인생의 상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평강은 항상 올 뿐 아니라, 모든 방법으로 옵니다.

사랑 · 인내 · 평강 이 세 가지가 조합되고 연합되었을 때, 이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인내는 사랑의 열매이며, 평강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우리 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인내와 평강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 오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인내와 평강의 모범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분께서 인내하신 것같이 인내하게 되고, 평강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분의 평강 안에서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V. 지식과 순종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골1:9-12)

바울 사도가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들(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그의 최고로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서신들에 등장하는 기도문들은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중 일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범과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들을 기도 가운데 세심히 그리고 꾸준히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필요한 가장 소중한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도들 중 골로새서의 기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도하는 이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방문하지도 않았던 교회들 중 하나입니다(골2:1). 그곳에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에바브라임입니다(골1:7).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마치 그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과 그들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골1:3),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다른 성도들의 영적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성품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성도들 안에 있는 은혜의 흔적에 감사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동시에 질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바나바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우리와 바나바 같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만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흔적, 모습,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 사도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축복은 널리 퍼지고 깊어 집니다.

2. 기도의 목적

이 기도를 올린 핵심 목적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며, 그분 자신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가장 깊은 경험 중 하나를 겪으실 때, 그분께서는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²⁹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식은 그분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³⁰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³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³²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삶은 이 구절에 확실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³³ 이렇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있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 역주 - 눅22:42

30 역주 - 요4:34

31 역주 - 마6:10

32 역주 - 시143:10

33 역주 - 요일2:17

이 기도에서 사용 된 “아는 것(knowledge, 지식)”이라는 말은 성숙한 지식을 뜻하는 것으로, 로마에서 쓴 네 서신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숙한 지식을 갖추는 것 또는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징표로 여긴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도 요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3단계(어린 자녀, 젊은이, 아버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지식을 얻고, 젊은이들은 지식 속에 거하고, 아버지들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는 확실한 안전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지식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채워지며”라는 표현은 이 지식이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식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며, 가끔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이 지식을 체험할 때, 그것은 위험을 막아 주는 확실한 방어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성장하며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알아야 할 비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이 지식의 특성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지혜란 영적인 일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수단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영적 깨달음이란 우리가 성경 속 진리를 실천하며 살기 위해 알아야 하는 원칙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거나 이미 알고 있는 원칙들을 조합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식이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잘 조합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원칙들을 비교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영적 깨달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에서 성경 속 진리를 통해 얻는 지혜, 깨달음,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혜 덕택에 우리는 정말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것을 항상 말하고 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그분의 뜻을 명확히 표현한 책인 성경을 꾸준히 가까이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해될 때,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뜻을 완전하게 알 수 없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분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정도로 성숙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깨끗이 씻어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마음속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밝게 비추어 보고 어둡고 잘못된 곳은 없는지 살펴 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한 곳을 방어해 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제어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덕분에

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멈추지 않고 활용해 간다면 우리는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에 대한 충분한 지식으로 꽉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3. 기도의 목적

지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구한 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분을 기쁘게 하고…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고… 강건하게 되며… 감사 드리기를 원하노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께 합당하게 걷는 법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식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걷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드러내는 성경의 독특한 단어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생명을 전제로 한 말이다 보니, 이 단어는 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지식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왜 가는지 모르는

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살아가며 하게 되는 일들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음”

“주께 합당하다”는 말은 정말 심오하고 탐구할 가치가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은 그대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히 걷는다는 것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영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합당하다(worthy)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엡4:1). 복음에 합당하게 (빌1:27). 성도의 마땅한 도리³⁴ (롬16:2).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전2:12) 등 이 단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일이었다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목표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34 역주 - KJB에서 as becometh saints라고 되어 있어 worthy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RV에는 worthily of the saints라고 되어 있어, worthy가 등장합니다.

모울 주교³⁵는 골로새서 연구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그분의 뜻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라고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도록 저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³⁶ 정말 영광스럽고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행할 뿐 아니라, 그분과 매우 가까이 지냄으로써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그분의 명령을 예측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깊이 있게 살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것들을 깨닫기를 바라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걷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등장하는 4개의 항목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이 문장의 단어들 각각을 잘 살펴 봅시다. 선한 일은 우리의 삶을 나

35 역주 - Handley Moule (1841-1920). 영국 더럼 지역의 주교.

36 역주 - 존 웨슬리의 기도로도 유명합니다.

타내는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한 일들 각각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하며, 그 열매들에서는 잘 익은 과일 같은 성숙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그 열매들을 먹게 될 사람들이 즐거워할 달콤한 맛과 아름다움도 더해져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한 이 구절이 단순히 일의 결과나 결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일을 통해 어떤 특별한 결과가 나오는데 관계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결과로는 열매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기는 과정 자체는 열매가 됩니다.

〈2〉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의 차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함이라”(빌3:10).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요17:3). “너희가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요일2:13) 같은 구절들을 묵상해 봅시다.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은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 때 그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 없이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3〉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자신의 생각을 넘치도록 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과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다 표현하지는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건해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강력한 권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³⁷ 그렇게 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입니다. 그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실망할 것입니다. 강건해져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겨우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이상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그분의 뜻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겠다고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모습과 온유함 속에 드러나는 강력함에 있습니다.

주의: 기쁨으로

이 구절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쁨으로”라는 부

37 역주 -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strengthened with all might)라는 문장에서 with all might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는 수단으로 봐서 “모든 강력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강건하게 되었을 때 갖추어야 할 상태로 봐서 “강건하게 되어 모든 강력한 권능이 함께 하고” 정도의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두 번째 방식으로 이 문장을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입니다. 기쁨이 없는 인내와 오래 참음은 차갑고 쌀쌀맞고 보기 나쁩니다. 자신에게 엄하게 대하여 금욕적으로 참는 행동이 때로는 존경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반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인내와 오래 참음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안에 스며들고 퍼져나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맡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4〉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감사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합당하게 걷는 법들 위에 왕관처럼 놓여 있는 최종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는 이 말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와 역경을 이겨낼 힘으로 가득한 삶과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성품을 말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기쁨이 그분의 백성의 힘이 됩니다.³⁸ 그리고 감사가 우리 삶을 상징하는 특징이 될 때, 감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실리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38 역주 - 느8:10

4. 기도의 특징

우리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바라는 점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심오한 비결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특징들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이처럼 힘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도움을 받고, 따라 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의 기도는 긴급하였습니다. “그것을 들던 날부터”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만나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강렬했습니다. “구하노니”라는 말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마음속 중심까지 깊게 감명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거룩함과 섬김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깊고도 강렬하며 갈망하는 간구가 그의 혼 속으로 들어와서 그

들을 위해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깊은 축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며, 그의 기도 역시 정말 대단합니다!

그의 기도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던 날부터” 이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가 함께 하며 드리는 기도는 교회의 위대한 권능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성도 두 명이 어떤 일에 대하여 동의하고 같이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귀한 일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에는 더욱 큰 힘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 덕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들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심오하며 귀중한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각과 경험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이 기도의 내용과 이 기도에서 드러난 심오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 제시된 내용을 볼 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은 모울 주교가 한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헌신에 주의합시다.”

여러분의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되려면, 그 행동이 생각을 거친 뒤

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각(mind)과 마음(heart) 사이의 모순이나 성경 기록과 헌신하는 행동 사이의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생각 없이 헌신하며 보낸 시간을 헌신한 시간으로 쳐 주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묵상하며 보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몸은 움직였지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헌신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너는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진실 된 마음과 성경 속 진리가 우리의 헌신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은혜와 축복을 누릴 가장 소중한 기회들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껍데기뿐인 경건 즉 신약 성경의 심오한 진리에 대해 꾸준히 묵상하지 않는 복음주의로는 절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주님과 성도님들을 길게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헌신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헌신 없이 성경 지식만 늘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인 잘못인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헌신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위험이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지 않고 지적인 욕심만 충족시키는 성경 공부에서는 영적인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어 원어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 내고, 성경 속 진리의 여러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알고 있고, 신약 성경의 교리에 대해 방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모두 필요하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헌신하려는 생각이 마음에 스며들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성경 공부는 마음에서 부패하고 머릿속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결국 많은 노력의 결과가 재앙으로만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헌신이 성경에 근거하고, 우리의 성경 지식이 헌신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것이란 무엇인지, 축복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주어진 권능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강건함에서 강건함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Ⅵ. 싸움과 위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총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골 2:1-2)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그의 주인께서 맡기신 일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말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도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또 다른 기도를 공부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 기도가 뜻하는 것

이 구절에서 기도는 “싸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바브라의 기도를 “뜨겁게 수고하나니”(골4:12)라고 말한 유사한 표현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싸움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선한 싸움”(딤후 6:12)이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 생애는 선한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딤후4:7). 기도를 싸움이라 보는 관점에는 수고와 다툼이라는 두 가지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수고라는 말에는 기도 안에 포함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때로 듣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다고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수고한다는 것을 모

르는 사람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다룰 필요가 있다는 말은 싸워야 할 상대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확인하고 방해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엡6:12)라는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한 내용은 what various hindrance we meet(여러 가지 방해를 우리가 만날지라도)이라는 찬송가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만 보아도사탄은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경험을 통해 기도란 강력한 적과 맞서기 위해 깨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적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것처럼 거대한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방해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놀라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벧전3:7).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작은 일에도 바로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는 공중의 영적 사악함의 군대로부터 악의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별로 없는 경우에는 사탄이 그들을 방해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거대한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근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싸움입니다. 단순히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울 주교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단순하고 그냥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기도란 절대로 빈둥거리면서 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매우 자주 어떤 주제나 환경으로 인해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수고와 집요함, 싸움이 포함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연구 p124)

모울 주교는 이 대단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잘 알려진 사례를 인용합니다.

어느 이른 아침, 어떤 사람이 선하다고 알려진 사람의 집을 방문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은 고귀한 청교도 같은 스타일의 성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문객은 친구로서 같이 대화를 하려고 그의 이름을 불렀고, 당연히 환영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긴 시간 문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종이 한 명 나와서 늦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기도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만나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도 기도를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기도를 그냥 편안히 노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에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대하고 있기는 한 건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큰 싸움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 보시고 기도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남을 위해 해야 합니다. 사도의 싸움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 보낸다면, 그 기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을 빠뜨린

실패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흠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잠11:24)라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성도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었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지내는 친한 사람들만을 위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깝고 밀접한 주제에 대해서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 가 있었고,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의 교회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넓게, 깊게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공감 능력을 갖추었느냐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확인하는 최고 난이도의 시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감 능력은 빠르기는 해도 좁거나, 넓기는 한데 깊지는 않거나, 깊기는 한데, 넓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분명 빠르고, 넓고, 깊은 공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싸움,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 공감 능력 같은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찢리는 곳이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싸우려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편안하게 기도해 온 것은 아닐까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기도한 적은 얼마나 많았나요? 남의 아픔에 공감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보잘것없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사무적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서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도 자신처럼 훌륭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 보게 하고 있습니다.

2. 기도가 가져 오는 것

바울 사도는 왜 얼굴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일까요? 그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한 귀중한 선물을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쓸데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선물이 확실히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는 영적인 힘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일의 중점과 핵

심을 정확히 찾아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변함없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도덕적, 영적 존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만약 마음이 옳다면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에는 기운을 내고, 권면을 받으며, 강하게 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위로는 강함과 용기 그리고 따스한 말과 행동³⁹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용감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찬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호칭 중 하나인 위로자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분께서는 강함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성공회 공통 기도서(English Prayer book)”에서 “위로의 말씀들(Comforting Words)”라고 잘 알려진 구절들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⁴⁰ 바울 사도의 마음과 입술에서 성도의 마음이 받

39 역주 - 책의 원문에서 위로는 comfort, 따스한 말과 행동은 consolation을 번역한 것입니다. Consolation의 경우, 사전을 찾아 봐도 위로, 위안이라고만 나와 있어, 의미가 명확하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40 역주 - 영국 성공회 공통 기도서는 성공회 신자들이 아침이나 저녁 같은 특정 시간, 크리스마스, 부활절 같은 특별한 날, 설교 전후, 주의 만찬, 장례식 같은 교회 행사 등에서 같이 해야 하는 기도들을 적어 놓은 책으로 1549년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위로의 말씀들”은 초판부터 들어 있던 내용으로 죄 사함, 구원해 주심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는데 사용되는 4개의 성경 구절을 이용한 짧은 글로 다음과 같습니다. <뒤>

아야 할 위로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그가 위로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살후2:17, 엡6:22).

강하고 용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 맞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유혹에 먹힐 좋은 먹잇감일 뿐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똑같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가장 필요한 것들 중 하나는 위로 받은 마음, 즉 삶의 중심이 강하고 용감하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자라가고, 커지며,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 안에서 꼭 맞게 함께 붙어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영 안에서 함께 보존되고, 함께 연결되기를 기도

그분께 진심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들을 잘 듣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11:28)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사도 바울이 한 말도 잘 듣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라. (딤후1:15)

사도 요한이 한 말도 잘 듣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요일2:1-2)

했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에서 강한 힘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결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화살은 끊어진 곳을 지속적으로 찌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엡4:3).

불화라는 썰기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모임, 단체 등에서 이 무기를 쓰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형제들이 연합된 곳은 주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연합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덕택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신 그분의 사랑 덕택에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사랑 이외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진리의 모든 진정한 의미를 전부 다 볼 수 없습니다. 우

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을 위해 행한 일들에 대해 그분께서 직접 축복을 더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도록 싸우고 기도하며 힘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필요하며 복된 일들 중 하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일은 사탄의 왕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와 반대로 분열시키는 일이나 따돌리는 일을 잘 하는 그리스도인은 사탄 편에서 일하며 그가 사랑하는 최고의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왕국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유능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그는 영적 확신을 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알게 된 충만함과 풍성함을 보여 주기 위해 부요함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가 이 구절에서 단어들을 어떻게 쌓아 올리는지 잘 살펴봅시다. “깨달음”에서 “깨달음의 충만”으로, “깨달음의 충

만함의 부요함”으로 단어를 하나씩 더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 사고 방식과 생각하는 능력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핵심적인 힘과 원칙 중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요즘에는 생각을 덜 할수록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와 그 의무를 다할 때 오는 영광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 깨달음의 충만함의 부요함이란 지적, 도덕적 신념이 둘 다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인간의 본성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울 주교의 해석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지성을 전부 활용할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요함에 도달하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충만한 확신”(히10:22), “소망의 충만한 확신”(히6:11), “큰 확신”(살전1:5) 등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보장된 모든 진리를 지적으로 알아 내는 일을 충분히 즐겨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처음에 등장하는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 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⁴¹를 살펴 봅시다. 누가 역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때 같은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깨달음을 통해 얻은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경속 진리에 대해 “저는 ~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라는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적 능력의 충만함에서 오는 모든 부요함”이라는 중요한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 감추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법을 알아내 봅시다.

우선 이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 능력은 앞서 말한 위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이 확신으로 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충만한 지식과 신념을 능숙하게 다룰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눈먼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41 역주 - 눅1:4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어느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분을 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처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지적 능력의 충만함에서 오는 부요함을 얻게 되는 사람은 강한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강건하고 사랑으로 연합되었을 때 신념과 확신이 밀려들어올 것이며, 세상은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신비에 대한 충만한 지식, 즉 그리스도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⁴²

그는 영적 지식을 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서신 서들에 즐겨 사용된 표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충만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성숙하고 높은 수준에 다다랐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한 단어로 요약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41 역주 - 눅1:4

42 역주 - 이 구절은 세 가지 해석을 섞어서 만든 구절입니다. KJB의 인지(acknowledgement)가 찰스 엘리콧(Charles Elicott, 1819-1905)의 주석에 나오는 충만한 지식(full knowledge)으로 바뀌었고, KJB의 “그리스도의 신비”(and of Christ)가 RV의 “즉 그리스도”(even Christ)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엘리콧의 주석이나 RV에는 나오지 않지만 KJB에는 존재하는 “아버지의 신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절에는 소수의 사람들, 다시 말해 귀족들과 지식인들만 특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혼란적이었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문제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들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골1:15)으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골1:20)로, 자신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분(골1:19)으로,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분(골1:20)으로, 영광의 소망(골1:27)으로, 자신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골2:3)으로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어렵קות한 것이나, 주저하게 만드는 것, 알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 가는데 필요한 충만하고 자유로우며 열린 기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이며 도덕적이고 동시에 영적인 이 지식은 모든 잘못을 막아 주는 보호 장치이며 모든 성장의 비법이고 모든 축복의 보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끊임없이 주의 깊게 연구해 봅시다. 이 기도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대충,

열정 없이 기도하는지 주님께서 알고 꾸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범적인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요청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감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를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알아야 하는 가장 심오한 비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VII. 지혜와 계시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1:15-19)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살펴보면, 영

적으로 바르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의 기도가 두 편 실려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이 기도들만큼 깊이 있고 배울 점이 많은 기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가능성의 최고 수준에 대해 알려줍니다.

1. 기초

15절을 볼 때, 우리는 그의 기도가 15절 이전에 나오는 내용에 분명하고 밀접한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개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다른 서신들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서신서들에서는 서두에 개인적인 인사를 전한 뒤, 거의 바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긴 문단이 기도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단은 14절이나 되는 분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축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기도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라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이 문단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이 문단에서 핵심이 되는 생각은 3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그들의 것이 됐는지 설명하는 놀라운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a)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모든 것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엡1:3-6a)

(b)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계획에 참여시키기 위해 긴 시간 반복적으로 중재하셨습니다. (엡1:6b-12)

(c)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계획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엡1:12-14)

자신(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6절), 그분(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12절), 그분(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1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구성원과 관련된 내용적으로 동일한 구절들이 이 문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도록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문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에 따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런 풍성한 공급하심 위에 자신의 기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그들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충만한 축복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계시 위해 기초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 덕택에 우리는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힘을 통해 인생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청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의미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들은 주변 내용

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덕택에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기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칭호는 3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⁴³에서, 그리고 바로 다음에 공부하게 될 기도에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3:14)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무척 독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권능과 은혜의 가장 높은 위치를 암시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 역시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근원이시며,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

43 역주 - 한국어답게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절의 표현이 3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한 것이 됩니다.

니다. 영광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밝히 드러내며, 그분의 뛰어나심을 찬란하게 비춥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지혜와 모든 위대함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며, 찬양을 통해 그분께로 돌아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인간의 과거 죄악된 삶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롬3:23). 둘째로 인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롬5:2).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쓰였습니다(롬15:7).

그리고 영광과 기도를 연합시키는 것을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찬양을 드리려면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려면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해야 합니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⁴⁴

44 역주 - 마6:13

3. 간구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 알고 실천해야 하는 최고의 비법이 담긴 심오한 기도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 하나님의 선물. 17절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부분을 살펴 봅시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쌓여 있는 축복이 가져다 주는 부요함(3절)과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8절)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조명⁴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인간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영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영(spirit) 앞에 정관사 the가 빠졌을 때, 그 단어는 성령님보다는 재능 혹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지혜와 계시를 얻게 됩니다. 이 두 단어는 전반적인 조명과 특정한 주

45 역주 - illumination의 번역으로 기본적인 의미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춘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두운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그분을 더욱 알게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제에 대한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독자들이 1-14절에 걸쳐 충분히 설명한 위대한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2) 이런 영적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옥중서신들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로 옥중서신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항상 충분한 지식과 영적인 영적인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성숙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에서 오는 깊고 자라나며 성숙한 의식을 말합니다.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가 우리의 것이 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을 통해 볼 때, 영적 통찰력과 도덕적 깨달음에 대한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깊이 이해하고 느끼는 것은 지적 이해 능력과 언어적 표현 능력과 별 상관이 없다는 사실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뭔가 어려운 준비 과정을 통과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기회가 적었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흔히 않은 수준의 영적

통찰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뛰어난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학구적이고 심오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이 은혜와 사랑과 교제 속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세상 지식이나 문화를 악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경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두 종류의 지식을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최소 지난 300여년 동안 엄청난 양의 지식과 과학과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 본능, 통찰력, 지식, 조명은 세상 지식들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⁴⁶

이런 영적 인식을 신약의 몇몇 구절들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V. 지식과 순종”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요일2:12-14). 이 구절들에서 그는 각 부류에게 두 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아버지들에게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롭게 더 이야기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46 역주 - 이 책이 1914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할 때 가장 모범적이었다고 평가 받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 가장 엉망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보니 이런 말이 가능했습니다. 출간 이후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책이 출간될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 지식과 영적 지식이 있지만, 영적 본능, 통찰력, 조명은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외에는 그들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나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교제를 통해 바로 나타나는 결과는 (그리스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의 눈이 영원히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마음이 지성,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마음의 모든 구성 요소를 깨끗하고 맑게 해 줍니다. 지성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변하고, 감정은 선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깨끗해지며, 의지는 올바른 것들에 순종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어진 새롭고 더욱 뛰어난 인지 능력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보기 어려웠던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명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영적으로 사는데 가장 필요한 축복들 중 하나이며, 영적인 잘못을 막아주는 최고의 보호 장치 중 하나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선한 것을 아느니라”(요일2:20)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요일5:20)

영적 삶에 영향을 주는 많은 문제들은 오직 이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 학력, 지적 능력도 그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쓸 수 있지만,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을 받은 갓난아기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겨진 신비를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4) 그분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영적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의 앞 부분을 살펴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위대한 현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영적 지식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며,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아 봅시다.

(a) 첫째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이란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온 부탁이며 제안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하나님의 제안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 안에 포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역시 이 소망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소망은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 사용하신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객관적인 관점에서든 그리고 주관적인 관점에서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실체로도,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객관적 실체라고 이해하면, 소망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꼭 차 있는 반석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자신의 믿음을 고정시킵니다.

소망을 주관적인 느낌으로 바라보면, 소망은 우리의 혼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되며,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소망은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그리스도 위에 고정된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란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 위에 쌓아 올린 주관적인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현실이 됩니다. 소망은 인생의 최종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믿음과 사랑을 따라갑니다. (15절)

믿음은 장막을 걷어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하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

보게 하며, 사랑은 지금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으로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해 사용하고, 소망으로 주어질 것들을 예측합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분과 관련 있고, 소망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들과 관련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 그리고 현재와 관련이 있고, 소망은 미래와만 관련이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바뀔 수 없게 확실히 정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망을 단순히 타고난 성격에 따른 긍정적 사고 방식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망은 다시 태어남에서 시작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절정에 도달합니다.

(b) 둘째로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또는 성도들 안에 가지고 계신 엄청난 재산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재산이 그분 안에 있다는 의미일 수도, 또는 우리 안에 그분의 재산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첫 번째 의미로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속유업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됩니다. 성도들은 지금 그분의 상속 유업을 일부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

래에 모든 것을 은혜로 상속받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영적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의도한 의미일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상속 유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상속자(heir)와 상속 유업(inheritance)은 언제나 소유의 개념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려준다”의 개념은 없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받게 될 것에 대해 단순히 기대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갖게 될 모든 것의 일부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며 귀중한 보석입니다. (신4:20) 성도들은 그분을 위해 지음 받았고, 그분의 찬양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43:21) 그분께서 “내 종 욥을 깊이 살펴 보았느냐”라는 엄청난 말씀을 통해 암시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성도들을 무척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고 신뢰하신다는 것을 알려 주는 구절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창18:19)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시나니 (시149:4)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도.
(시37:23)

또한 이 엄청난 재산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에게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에베소서에서만 다섯 번이나 풍성함(riches)이라는 단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합니다.⁴⁷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요함이며, 재산이고,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에게로 온전히 들어오시는 날, 다시 말해 그분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믿는 자들이 그분께 속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살후1:10).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 각각이 지니고 있는 영적 가능성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서 직접 소유하신 상속유업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며,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47 역주 - 흠정역에서는 문맥에 따라 풍성함 또는 부요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 그분의 풍성한 은혜(the riches of his grace, 엡1:7)
- 성도를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풍성함(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엡1:18)
-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the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 in his kindness toward us through Christ Jesus, 엡2:7)
-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엡3:8)
-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the riches of his glory, 엡3:16).

것입니다.

(c) 세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거나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기 거의 불가능한 이 세 번째 영적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권능(power)”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즐겨 쓴 단어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롬1:16),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롬1:4),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전1:18) 같은 구절들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철학이나 도덕에서 오는 권능이 아니라 살아 있고 힘차게 움직이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얻으려면 그분의 복음을 통한 특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권능에 대해 분석해 봅시다. 4가지 항목 정도로 비교하고 설명해 보았습니다.

① 이 권능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행하신 권능과 정확히 동일한 권능입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최소 기준일 뿐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것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을 때 그분께서 그리스도 위에 행하신 영적이고 도덕적인 힘을 우리는 소유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힘을 사도 바울은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극히(exceeding)”라는 형용사는 은혜(엡2:7)와 사랑(엡3:19)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 부어졌고, 지금 우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이 권능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권능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네 가지 영어 단어, power, energy, strength, might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합니다. 각 단어는 이 위대한 영적 권능의 여러 가지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Might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⁴⁸ Strength는 뭔가를 움켜 잡은 결과로 주어진 권능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체나 도구를 움켜 잡아 얻게 된 권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나 개념, 목표 같은 추상적인 것들을 잘 잡아 이루어낸 결과에서 얻게 된 권능도 의미합니다. 또는 이러한 권능의 원천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어낸 결과를 의미합니다.⁴⁹ Energy는 밖으로 표현된 권능을 의미합니다.⁵⁰

48 역주 - KJB에서 might는 명사인 “힘”의 의미보다는 조동사의 “~일 것이다”의 의미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은 창세기 49장 3절로, 야곱이 르우벤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칭할 때, 능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might에서 파생된 형용사 mighty는 강력함으로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49 역주 - 흠정역에서 strength는 주로 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50 역주 - Energy는 KJB와 RV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NIV와 RSV에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KJB에서 그분의 활동(his work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분의 에너지(his energy)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권능 위로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떤 능력이 작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더 나아가서,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 행하시는 바로 그 권능입니다. 이것 역시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힘이며 에너지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에게 그분을 주신 바로 그 권능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권능을 쓰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도하신 것임을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또 주시려고 하는 활기차고 승리로 가득한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간구한 그분의 부르심은 과거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로 간구한 그분의 상속 유업은 미래와 관련이 있으며, 세 번째로 간구한 그분의 권능은 주로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간구 내용이 다른 두 시점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

님께서는 우리가 넘치게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이 기도 전체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상속 유산, “그분의” 권능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에 대해 묵상하다 보면 놀라움과 사랑과 찬양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우리 혼 위에 많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기도를 공부하며, 우리 앞에 놓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a)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수없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알아야 한다는 것.

(b) 지금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미래에 엄청나게 크게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

(c)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너무 없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수없이 많은 일을 그분을 위해 하게 될 것이며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도에서 배운 내용을 잊지 말고 계속 떠올리고 실천해 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간단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비결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영적 조명, 영적 통찰력, 영적 경험,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활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VIII. 강건함과 내주하심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엡3:14-19)

서신서들에서 기도들과 기도가 아닌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기도들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다른 부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담긴 훌륭한 간구 내용들은 다른 기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이 내용들은 마치 거대한 궁전 안에 있는 문들로 연결된 아름다운 방들 같아서,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넘어갈 때마다 지난 번 방보다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왕께서 계시는 알현실에 가까워져 가고 결국에는 알현실 안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놀라울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기도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많은 표현들을 상세하게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1. 논점

이 기도는 “이런 까닭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까닭”은 에베소서의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3장 1절 시작 부분의 “이런 까닭에”와 연관 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3장 1-13절에서 이 서신서를 통해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주제에서 잠시 벗어나 있던 사도 바울이 기도의 형식으로 다시 핵심 주제로 돌아갔다고 그들

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 “간힌 자”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4장 1절에서 핵심 주제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보면 3장 전체는 핵심 주제들 사이에 삽입된 부분이 되는데, 이 기도가 2장에서 가르친 내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3:1-13)과 그 결과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분께서 보내신 신뢰이며, 그분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 사역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도의 주제는 이 기도 바로 위에 있는 구절들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사역과 그로 인한 결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모든 영적 특권 덕택에 그는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었고(13절),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14절).

따라서 1장에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 본 것이라면, 이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특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자세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14-15)라는 부분을 살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집중해서 정성껏 경배를 올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 특히 주목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눅18:11-13).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특이한 자세로 보입니다.⁵¹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자세와 관련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언급된 구절이 있습니다(행7:60, 9:40, 20:36). 무릎을 꿇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혼의 진실한 자세를 더 아름답게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자세와 더불어 아버지라는 단어의 사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필요한 진리와 신뢰의 다른 측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엡1:17). 따라서 우리의 자세는 확신과 사랑, 존경이 넘쳐야 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선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기록하신 분과 사랑이 많으신

51 역주 -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단6:10)

분으로 알고 다가가야 합니다.

3. 칭호

이 기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15절)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도에서는 1장에서처럼 그분을 부르는 칭호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도가 높하시고 능력 있는 분께 올려진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는 온 가족이 fatherhood라고 되어 있으며, 모든 아버지들의 자격 또는 모든 아버지다움에 이름을 붙이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정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영적으로 진실되게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며, 아버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 주시고, 그렇게 사는데 필

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깊이 생각할 때, “하늘과 땅”이라는 이 기도의 범위에 대해 특히 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만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친한 사람들만 생각하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이런 문장만큼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4. 부탁

“그분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며”(16절). 1장의 기도에서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구하려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지식이든(엡 1:17), 권능이든(엡3:16), 그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감춰진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 그리고 모든 완벽한 선물은 위로부터 옵니다.

5. 기준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16절).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에 뭔가 충만한 것이 들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것들의 분량을 가난한 우리 자신의 기준에 맞춰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맞췄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담긴 무한한 풍성함을 보아야 합니다.

1장의 기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 간구

이 기도를 대략적으로 살펴 볼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거대한 영적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활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려면 성령님의 힘이 필요하며, 성령님의 힘이 주어진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

고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이것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바울 사도가 간구하는 각각의 내용은 세심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분의 영께서 주신 권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됨⁵²(RV, 3:16).

1장의 기도에서 집중적으로 간구한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3장의 기도의 주제는 힘⁵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서 권능으로 이어지는 이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식 없는 권능은 무척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어려운 것 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이 힘은 우리 속사람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고후 4:16, 롬7:2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은 반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힘은 육체나 정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사람과 새 사람은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본질적

52 역주 - KJB에는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strengthened with might by his spirit in the inner man)"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KJB는 그분의 영께서 강건하게 해 주신 결과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가 강하며, RV는 그분의 영께서 주신 권능으로 강하게 된다는 말로, 권능을 수단으로 보는 의미가 강합니다.

53 역주 - 강건하다라고 번역된 strong의 명사형은 strength로 힘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 영적 삶과 바깥으로 드러난 육신적인 삶을 대조시키면서 영적 삶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며야 할 것은 썩어 없어질 겉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감추어진 속사람입니다.

(2)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⁵⁴(RV, 3:17)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힘을 공급해 주실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사실상 동일합니다(엡 2:22). 물론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완전히 같은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고후 3:17,18).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루시는 일이 같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며 실제로 얻게 되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같

54 역주 - 한국어 번역은 동일하지만, KJB는 "믿음을 통해"를 by faith로, RV는 through faith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By는 "수단이나 방법, 방식을 사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고, through는 "시스템이나, 절차, 과정을 거쳐 간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원어인 신문 기자나 편집자들도 뭘 써야 하나 가끔 토론할 정도로 구분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KJB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보았고, RV는 절차,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저자는 믿음을 절차나 과정을 보아 RV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완전히 같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하시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머물다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성경의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도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을 그분의 집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향력을 끼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직접 거하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 속사람의 모든 부분부분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거주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모든 혼을 다해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17절)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도 영원히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는다는 두 표현은 아름답게 서로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를, 다른 하나는 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은 성령님께서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결과로 우리 혼에서 진행되는 숨겨진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 알려 줍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발휘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마음 농장은 성경에 나타난 사랑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관리됩니다.

이 구절에 등장한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6번⁵⁵이나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이 등장한 구절들을 조사해 보면,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과 그 공간을 둘러싼 분위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선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랑만을 뜻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여야 하며 그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55 역주 - 1:4, 3:17, 4:2, 4:15, 4:16, 5:2

(4)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해 지고⁵⁶(RV, 18절)

바울 사도는 이 구절에서 다시 한 번 힘에 대해 강조하면서, 그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힘과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뛰어난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개념들은 지적 활동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뛰어난 지적 능력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에는 사랑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19절에서 다루려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미리 다루면서 그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네 가지 측면의 의미에 대해 알아 봅시다.

그 너비란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선 또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조연, 도우심의 범위는 끝없이 넓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길이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시대를 초월한 생각에 대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높

56 역주 - KJB의 “능히(able)”가 “강건함(strong)”으로, 깨닫다는 동사를 comprehend에서 apprehend로 바꾸었습니다. 아래 글을 볼 때, 저자는 comprehend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 apprehend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 보면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는 회개하는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인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깊이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길을 잃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구속하시러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 오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방향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능력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 묵상해 볼 때, 영적인 것들을 혼자서 다 해 보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 챙긴다면 하는 수준 낮은 사고 방식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사도는 “모든 성도”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합니다 (엡3:18, 6:18).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⁵⁷아래 있는 각 성도들의 위치와 권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일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성도는 다른 일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할 때 하나

57 역주 -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이라는 의미로, economy의 번역입니다. Economy는 경제로 자주 번역됩니다. 경제 생활에서 자신이 잘 하는 것을 남이 잘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처럼 신앙 생활도 자신이 잘하는 것을 다른 성도님들과 나누며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후8:13-15)

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교제 범위가 더 넓어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더 확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으리라”⁵⁸

라는 말씀을 잊지 맙시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경험들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그분을 좀 더 풍성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도로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한 혼이 의롭게 되는 것은 혼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한 혼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5)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19절)

18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이 올바르다면, 19절은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 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네 가지 측면과는 다른 다섯 번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8 역주 - 마18:20

성도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권능이 모든 것을 뛰어 넘는 권능인 것처럼(엡1:19), 이 사랑은 지식을 뛰어 넘는 사랑입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영적 체험과 관련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이해하는 것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본 최고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 무한히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게 알아갑니다.

(6)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19절)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 구절은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최종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강건함, 그분의 내주하심, 사랑, 지식이 흘러나옵니다. 이것들로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에 이를 때까지 채워져 갑니다.

1장의 기도에서는 이 충만함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와 연관시켜 설명했습니다(엡1:23).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인 우리들로 명확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내용을 성령충만에 대해 이야기하는 5장 18절과 연관시켜 보

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분과 각각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혼은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한 합당한 조건을 갖추려고 할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프랜시스 하버갈 여사(Frances Ridley Havergal, 1836-1879)⁵⁹의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주님의 위대한 뜻을 알게 하소서.

59 역주 - “나의 생명 드리니”와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가의 작사가로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IX. 사랑과 분별력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빌1:9-11)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요소들 중 하나는 그와 성도들 사이에 분명하게 드러난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잘 드러납니다. 빌립보서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숨김없이 드러낸 서신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과

가깝게 지냈고, 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과 또 그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 더 잘 아는 만큼 강력해지며,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만큼 약해집니다.

1. 확고한 요청

그리스어 성경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내가 이것을 끊임 없이 구하노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그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 너희의 사랑

그는 사랑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생명을 가졌기에, 그 생명이 사랑 안에서 표현되기를 바랐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주제로 꽉 차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사도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이렇게 잘 드러난 서신은 없습니다(빌 4:14-18 참조). 신약 성경에서의 사랑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강력하

며 실천적이고 강렬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봅시다.

이 사랑에는 당연히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을 뛰어 넘습니다. 이 사랑에는 틀림없이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이상입니다. 이 사랑에는 분명히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갈망을 넘어섭니다. 사랑이란 자기밖에 모르는 본성에서 완전히 떠나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온 동정심과 목표를 위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남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진실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최상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요14:15)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요21:16)

“너희가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벧전1:22)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라”라고 이교도들이 말했던 것은 비꼬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놀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

는 가장 참 되고 진실되며 강력하고 매력적인 증거를 소유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낼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 곧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는 풍성한 사랑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금이 아닌 넘치는 사랑을, 약간이 아닌 많은 사랑을 구했습니다. 사랑이 현실이 되려면 강렬한 사랑으로 꽉 차서 넘치는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꾸준한 강화와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얼마나 풍성하게 잘 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3) 곧 너희의 사랑이…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는 자라나는 사랑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그 자체와 사랑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너희의 사랑”이라는 문구에 여러 표현을 조금씩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변화 없이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자라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이 태어난 뒤 성장하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 역시 사랑 안에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은 “더욱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더

욱더 자라가고, 그 사랑을 더욱더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자라나듯, 영적인 생명도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자라나고 발전하며 진보하고 확장되고 넓어져야 합니다.

(4)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분별력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RV)⁶⁰

그는 분별력 있는 사랑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지식과 분별력이라는 두 단어에 특별히 더 주목해 봅시다. 지식은 원칙을 의미하고, 분별력은 그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충만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고 있다는 증거로, 그것은 영적인 인식, 영적인 느낌, 영적 분별력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지적 이해 능력과 영적 통찰력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지만,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지적 능

60 역주 - 판단(judgment)이 분별력(discernment)으로 바뀌었습니다.

력은 좀 떨어지지만 정말 영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 말할 때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요3:3)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5:8)

우리의 모임에는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아마도 지적 능력이 평균 이하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심오한 영적 지혜를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통해 깊은 통찰력과 날카로운 시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2.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할 목표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⁶¹(10절, RV)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사랑의 꾸준한 성장과 풍성한 사랑은 매우 현실적인 목적을 위

61 역주 -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는 일이 KJB에서는 그냥 할 일이지만, RV에서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하는 이유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분별력은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꾸준히 성장하고 풍성할 때, 우리는 분별하고 증명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입증까지 가능합니다. 라이트풋(Joseph Barber Lightfoot, 1828-1889)⁶²

이 지적인 것처럼, 사랑은 도덕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카롭게 작동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일에서 사랑은 적어도 눈 먼 장님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날카로운 눈을 가진 감시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며, 그 분별력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해 낼 뿐 아니라, 그냥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차이를, 더 좋은 것과 최고로 좋은 것의 차이를, 최고로 좋은 것과 그것을 넘어서는 뛰어난 것의 차이를 분별해 낼 수 있게 됩니다.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라는 말은 로마서 2장 18절에도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선 다른 것을 찾아 내 구분한 뒤 남은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것들이라는 점을 입증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은 오늘날 특히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62 역주 - 영국의 신학자이자 영국 더럼 교구의 주교.

는 그리스도인들의 혼이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괜찮아 보일 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영적으로 위험하고 심지어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고 자라날 때 얻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혼은 악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뛰어난 것들을 입증할 수준으로 성장해 가고, 더 나은 것들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별력을 갖고 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기 위해 대언자 이사야는 그분을 하나님의 영을 부여 받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강렬한 향기를 뿜어내는 분이라고 묘사했습니다(사11:3, 히브리어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성령님을 통해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은 강렬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3. 영원한 결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그들의 성품을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히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나타냈다 숨겼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 사

도가 간구하며 올린 기도의 모든 내용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튼튼하고 영원히 자리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 성실함 - 너희가 성실하고(10절)

이것은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 것도 숨기지 않은 상태로 시험해 본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리를 따르며 진실되고 모든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동기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아무 것도 숨기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그분의 시험과 판단 앞에 내어놓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실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다면, 속마음에 의심이 전혀 없어야 하며, 매 순간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의 완전한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2) 일관성 - 실족거리가 없는(10절)

이것은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는 진실해야 하며,

외적으로는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그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⁶³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3) 성품 -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안과 밖 전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최고 수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떤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우리 속이 의의 열매로 영원히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올바르고 곧으며 참되고 정확하며 곧바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들로 채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일하고 계십

63 역주 - 마11:6을 변형해 인용했습니다.

니다.

4. 궁극의 목표

이 기도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1:10, RV)⁶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빌1:11).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됩니다(마5:16).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리스도의 날에 최고 수준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인생에서 행한 것들과 그분께 드린 섬김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빌1:6, 2:16). 사도 바울은 그 날에 대해 항상 생각했으며, 그 날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3:11-21).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최고 수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루하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

64 역주 - RV에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till the day of Christ)”에서 till을 unto(to의 옛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가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진 look forward to를 활용하기 위해 RV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끝없는 기쁨을 주실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인생에는 어떤 복잡한 것도, 쓸데 없는 참견도, 이해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다시 한 번 읽어 봅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라는 구절을 통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기도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사람 안에 계시며 일하심으로써 의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실제로 그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빌1:6). 이 구절 역시 그가 자주 하던 말과 그가 갖고 있는 확신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와 사도의 다른 기도들을 묵상하면서 용기를 맏시다. 사도 바울의 훌륭한 영적 통찰력을 통해 알려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들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

해 볼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풀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기도들이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는 이런 기도를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이 기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 응답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결심을 하고, 겸손히 사랑을 품고, 그분을 신뢰하며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부 록

책의 분량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를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5장 13절의 있는 기도는 저자의 Royal and Loyal 5장과 로마서 주석의 3권 103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전체 내용은 The Power of Peace라는 저자의 책을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기도들에 있는 주석 상의 근거를 위해 여러 가지 표준 주석서들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이 책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는 Milligan, Frame, Eadie, Ellicott, 로마서는 Sanday, Headlam, Godet, Lightfoot, 에베소서는 Armitage Robinson, Westcott, Eadie, 빌립보서는 Lightfoot, Ellicott, 골로새서는 Lightfoot, Ellicott입니다. 설교자들은 이 위대한 분들의 안내에 따라 그리스어 자료들을 꼼꼼이 묵상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강해 설교를 위한 첫 단계는 성경 문장들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하여 영적인 교훈과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에 대해서는 Expositor's Bible의 Denney편, 로마

서에 관해서는 Moule편, 에베소서에 관해서는 G. G. Findlay편과 R. W. Dale의 잘 알려진 강의들,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Rainy편과 Jowett의 The High Calling, 골로새서의 대해서는 Maclaren편과 Moule의 Colossian Studies과 Bishop Nicholson의 Oneness with Christ입니다.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는 W. B. Pope, D.D.의 The Prayers of St. Paul, E. W. Moore의 The Pattern Prayer Book, 저자 미상의 Preces Paulinæ에도 다루어져 있습니다.

단기 과정 도서 시리즈 소개⁶⁵

이 도서 시리즈의 제목은 이 책의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이나 회중들은 전통적인 설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긴 강해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하나의 확실한 주제와 관련된 6-8개 단원 정도의 단기 과정이 설교자들과 회중들의 영적 성장이나 사역에 필요하다는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 시리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목사나 설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리즈는 성경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실제적 해설에 관심이 있는 일반 성도 및 주일학교 교사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기 과정 시리즈의 책들은 아마도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사역자들이 찾기 쉬운 곳에 항상 두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의미 있는 성경 참고 자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65 역주 - 이 부분은 원래 이 책의 출판사 서문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이 책의 주제인 바울의 기도보다는 이 책이 속한 시리즈를 소개하는 내용이며, 시리즈에 해당하는 책들이 번역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책 맨 끝으로 빼냈습니다. 관심이 있고 원서를 읽을 능력이 되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부록의 책들과 이 목록의 책들은 전부 저작권이 만료된 책들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전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성격과 의도가 일관되고 통일성을 갖게 하기 위해 덧붙이는 글을 가능한 자제하려고 노력했으며, 각 과목의 특별한 해석과 의견에 대한 최종 근거는 별도의 책자에 소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기고자 각 사람에게 있게 했습니다.

상세한 저자들과 담당 주제들은 각 권의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 목록

A Cry for Justice: A Study in Amos. By Prof. John E. McFadyen, D.D.

The Beatitudes. By Rev. Robert H. Fisher, D.D.

The Lenten Psalms. By the Editor.

The Psalm of Psalms. By Prof. James Stalker, D.D.

The Song and the Soil. By Prof. W. G. Jordan, D.D.

The Higher Powers of the Soul. By Rev. George M'Hardy, D.D.

Jehovah-Jesus. By Rev. Thomas Whitelaw, D.D.

The Sevenfold I Am By Rev. Thomas Marjoribanks, B.D.

The Man Among the Myrtles. By the Editor.

The Story of Joseph. By Rev. Adam C. Welch, B.D., Th.D.

The Divine Drama of Job. By Rev. Charles F. Aked, D.D.

A Mirror of the Soul: Studies in the Psalter. By Rev. Canon Vaughan, M.A.

In the Upper Room. By Rev. D. J. Burrill, D.D., LL.D.

The Son of Man. By Andrew C. Zenos, D.D., LL.D.

The Joy of Finding. By Rev. Alfred E. Garvie.

The Prayers of St. Paul. By Rev. W. H. Griffith Thomas, D.D.

The Emotions of Jesus. By Prof. Robert Law, D.D.

Belief and Life. By W. B. SELBIE, MA., D.D.

The Prophecy of Micah. By Rev. ARTHUR J. TAIT, D.D.

The Expository Value of the Revised Version. By GEORGE MILLIGAN, D.D.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섬김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1000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2	13000
75	로마서 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80	사무엘 킵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 수준의 생활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종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영균	102	5000
87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종욱	294	8000
88	믿음 사용 설명서	Linton M. Smith	96	4000
89	솔로몬의 인생보고서	전종욱	384	14000
90	룻기	전종욱	144	5000
91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	김영균	56	1000
92	다윗의 실패	James W. Knox	176	7000
93	바울의 기도	W. H. Griffith Thomas	160	7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

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❶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❷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옮긴이 **조 중 권** 형제

- 진리침례교회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 역서 : 사무엘 김의 설교 1, 성경을 읽는 방법 등

